

## 해외 원조 등의 윤리적 책임과 기여

그렇다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가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다음 글을 읽어 보자.

연계 학습 >> 202쪽 원전 읽기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보면,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궁극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는 고통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종은 이익을 고려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익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고통에 관하여 그것이 특정한 인종이 겪는 고통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덜 한다면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될 것이다. - 싱어, 『실천 윤리학』 -

② 인종이나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

#### 의무의 관점

- 싱어: 공리주의 입장
- 롤스: 정의 실현

#### 자선의 관점

- 노직: 자발적 선택

윗글에서 싱어는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빈곤에 따른 개인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해외 원조의 목적은 가난과 굶주림에 따른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다.

만화로 이해하는 > 싱어, 롤스, 노직의 해외 원조관점



싱어는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이므로 도움을 줄 대상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민족, 국경 내부로 한정하지 말고 지구촌 전체로 확대하여 해외 원조와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롤스는 해외 원조가 정의 실현을 위한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해외 원조의 목적은 독재나 착취와 같이 사회 구조나 제도가 빈곤을 발생시키는 불리한 여건의 사회가 적정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원조를 통해 그들이 스스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때 질서 정연한 사회란 독재나 착취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선되어 정치적 전통, 법, 규범 등의 문화가 적정한 수준에 이른 사회를 말한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것이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나 복지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질서 정연하다면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롤스의 관점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개인의 복지 향상을 원조의 목적으로 하는 싱어와 대비된다.



○ 국제연합이 지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기념해 한 구호 단체가 빈곤 문제를 상징하는 옥수수 모형물을 세워 놓은 모습

● **공적 개발 원조(ODA)**  
정부 개발 원조라고도 하며, 중  
여·차관·배상·기술 원조 등의  
형태를 취한다.

● **우리나라와 해외 원조**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해외  
원조의 도움으로 폐허에서 벗어  
나 번영을 이루었다. 200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개발원  
조위원회에 가입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

반면 노직은 자선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자신의 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외 원조나 기부를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직은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로 인식한 싱어와 롤스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는 어떤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자 윤리적 행위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외 원조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절대 빈곤이 사라진 평화로운 지구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후원과 기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구촌 이웃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이때 원조를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배려하는 태도도 갖추어야 한다.

국가적·국제적으로는 해외 원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 개발 원조(ODA) 등과 같은 제도를 더욱 확충하고, 각 국가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해외 원조를 윤리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처럼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 원조 등의 윤리적 책임과 기여를 다할 때 국제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 탐구하고 실천하기

윤리적 실천 방안 제안하기

다음 글을 읽고 지구촌의 빈곤과 기아 종식을 위해 싱어, 롤스, 노직의 입장에서 제안할 방안과 내가 실천할 방안을 각각 써 보자.

2015년 9월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향후 15년 동안 국제 사회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세계의 변혁: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가 각국 정상들의 합의로 발표되었다.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발전'을 표방한다. ....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빈곤과 기아의 종식을 일차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절대 빈곤의 완전 종식과 국가별 빈곤 인구의 50% 감축,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식량 공급을 규정하면서 모든 종류의 빈곤을 종식하는 것이 국제 사회가 힘을 합쳐 달성해야 할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뉴시스, 2016. 5. 30. -

● 싱어, 롤스, 노직이 제안할 방안:

● 내가 실천할 방안:

